

# 조응관계 실타래 풀기

정소우\*†

성신여자대학교

**So-Woo Chung. 2004. Untangling Anaphoric Threads. *Language and Information 8.2*, 1–25.**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approaches to resolving a theoretical problem which the bottom-up approach version of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of Kamp et al.(2003) faces in dealing with anaphoric relations between pronouns and their potential antecedents in conditional sentences where consequent clauses precede their corresponding conditional clauses. In one of the approaches, every element is processed in the order of occurrence and conditional operators in a non-sentence-initial position cause the ongoing DR to split in two with the same index. The definition of *accessibility* is accordingly modified so that the right DR can be accessible from the left DR. In the other approach, a different type of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K \Leftarrow K$ , is introduced, which allows us to resolve the target problem without modifying accessibility proposed in Kamp et al. (2003). Compatibility of these two approaches with the bottom-up version of DRT is evaluated by examining their applicability to the analysis of quantified sentences where pronominal expressions precede generalized quantifiers. (Sungshin Women's University)

**Key words:**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담화표상 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 선행 분석(left-to-right analysis), 역행 조건 운용자(backward conditional operator)

## 1. 머리말

본 논문은 Kamp et al.(2003)에 제시된 밑에서 위로의 상향식 (bottom-up) 담화표상이론이 주절이 조건절을 선행하는 조건문과 대명사 표현이 양화사 표현보다 선행하는 양화사 구문과 관련하여 조응어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제를 논하고자 한다.

---

\*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swchung@sungshin.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Kamp & Reyle (1993)에 제시된 담화표상구조 생성 규칙과 접근가능성 등 담화표상이론의 기본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고, Kamp et al.(2003)에 새로이 제시된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의 주요 특성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이어서,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이 주절이 조건절을 선행하는 조건문에 나타나는 조응어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문제의 조응어 관계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위하여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의 담화표상 생성 규칙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수정안을 검토한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선형분석의 개념을 이용한 담화표상 생성 규칙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때, 담화표상이론의 여러 원리 중 조응어 관계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접근가능성의 정의도 본고에서 제안된 생성 규칙에 알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수정 방법은 일반 술어논리에 서는 흔히 다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담화표상이론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역행 조건 운용자를 이용한 담화표상 생성 규칙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정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담화표상의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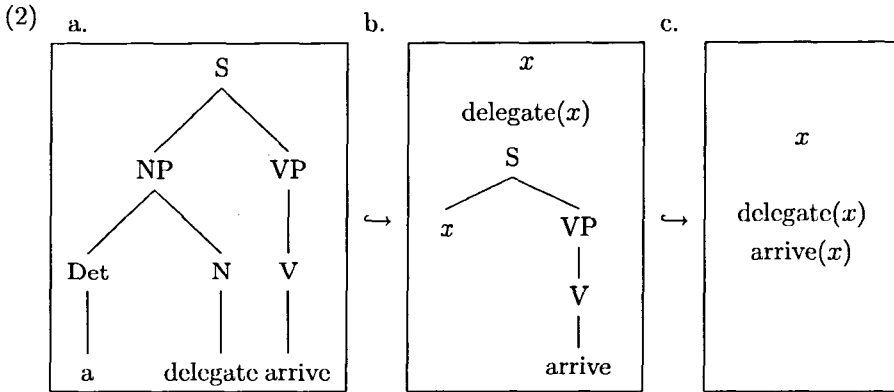
### 2.1 담화표상구조와 접근가능성

Kamp(1984)와 Kamp and Reyle(1993)에 제시된 담화표상이론은 몽테규 의미론과 같은 진리조건적 의미론이 역점을 둔 문장의 진리 조건뿐만 아니라 화용론에서 역점을 둔 문맥과 문장 의미간의 상관관계를 담화표상을 통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 담화표상이론은 통사적 단계, 담화표상구조단계, 그리고 해석단계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담화표상구조단계는 대화에 참여하는 청자와 화자가 언어표현을 듣고 머리 속에 그리는 마음의 표상 (mental representation)을 나타내는 담화표상들로 이루어지며, 담화표상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명사간의 조응관계, 시제간의 조응관계, 함의관계, 양화사간의 영역관계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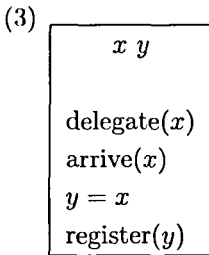
담화표상은 기본적으로 지시적 표현에 의해 지시되는 개체를 표시하는 담화지시자와 그 개체가 갖는 속성에 대한 조건으로 구성된다.

- (1) A delegate<sub>1</sub> arrived. She<sub>1</sub> registered.

담화표상구축 규칙을 이용하여, (1)의 첫 문장을 위한 담화표상을 생성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2c)의 담화표상에서  $x$ 는 *a delegate*가 지시하는 개체에 해당하며,  $delegate(x)$ 와  $arrive(x)$ 는 개체  $x$ 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같은 과정을 거쳐 (1)의 두 번째 문장을 분석하면 아래 (3)의 담화표상을 얻게 된다.



담화표상이론에서 두 표현간의 조응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접근가능성이다. 먼저 대명사는 접근가능한 위치에 있는 담화지시자와만 조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Kamp and Reyle(1993)은 접근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4) Accessibility (Definition)

Let  $K$  be a DRS,  $x$  a discourse referent and  $\gamma$  a DRS-condition. We say that  $x$  is accessible from  $\gamma$  in  $K$  iff there are  $K_1 \leq K$  and  $K_2 \leq K_1$  such that  $x$  belongs to  $U_{K_1}$  and  $\gamma$  belongs to  $Con_{K_2}$ . (Kamp and Reyle 1993: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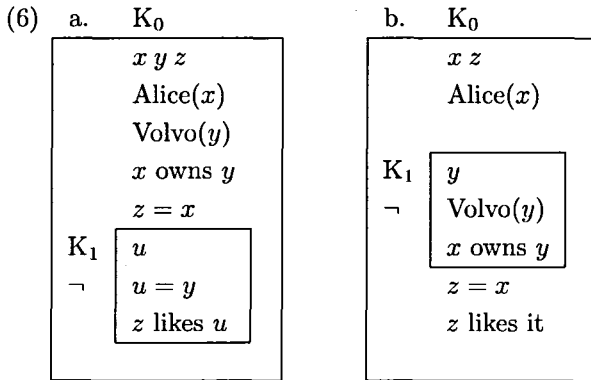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접근가능성을 살펴보자.

(5) a. Alice<sub>1</sub> owns a Volvo<sub>2</sub>. She<sub>1</sub> does not like it<sub>2</sub>.

b. Alice<sub>1</sub> does not own a Volvo<sub>2</sub>. \*She<sub>1</sub> likes it<sub>2</sub>.

Kamp & Reyle(1993)는 (5a)의 대명사 *it*은 비한정명사 *a Volvo*와 조응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5b)의 *it*과 *a Volvo*는 조응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은 두 표현이 소개하는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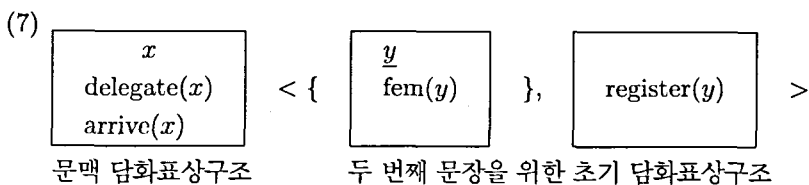
화지시자간의 접근가능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아래 (6a)와 (6b)는 각각 (5a)와 (5b)의 의미를 담화표상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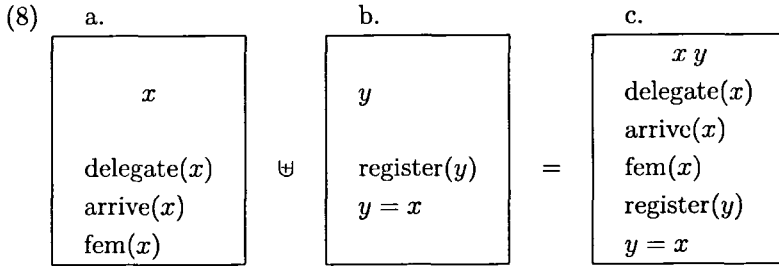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주의할 것은 *Alice*와 같은 고유명사는 어느 곳에서 분석되든지 그 담화지시자를 주 담화상자인  $K_0$ 에 소개하는 반면, 대명사와 비한정표현은 분석되는 담화상자에 소개하게 된다. (6a)에서 대명사 *it*은 비한정명사 *a Volvo*가 소개한 담화지시자  $y$ 가 속한 담화표상  $K_0$ 보다 하위담화표상인  $K_1$ 에 속해있어, *it*은  $y$ 에 접근가능하며 그 담화지시자와 조용적인 연결을 맺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명사 *it*은 비한정명사 *a Volvo*와 같은 개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6b)에서 대명사 *it*은 *a Volvo*가 소개한 담화지시자  $y$ 가 속한 담화표상  $K_1$ 보다 상위담화표상인  $K_0$ 에 속하여 있다. 결과적으로, 대명사 *it*은  $y$ 에 접근가능하지 못하며 *it*과 *a Volvo*는 동일 개체를 지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접근가능성은 담화표상간의 구조적 관계로 설정되며, 명사간의 조용관계에 대한 설명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 2.2 아래에서 위로의 구축

2003년 미국언어학회에서 주관한 여름학교 강좌와 유럽의 ESSLLI 여름학교 강좌에서 소개된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은 위에서 아래로의 구축방법을 사용하던 기존의 담화표상 구축방법과는 다른 아래에서 위로의 담화표상 구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Sandt(1992) 등 여러 담화표상이론 문헌에서 논의된 전제와 조응어의 유사성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예로써, 전 절에서 논하였던 (1)의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she*는 담화세계에 최소한 한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분석한 후, 두 번째 문장에 나타나는 전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아래 (7)과 같다.



위 담화표상구조에서 중괄호 안에 있는 밑줄 친 담화지시자  $y$ 와 조건  $fem(y)$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전체 부분은 전체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담화표상의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밑줄 친 담화지시자  $y$ 는 대명사 *she*가 조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선행사는 주어진 문맥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어진 문맥에서 [+female]의 속성을 만족시킬만한 개체로는 오직  $x$ 만이 존재한다. 이  $x$ 가 female의 속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8a)와 같이  $fem(x)$ 란 조건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맥에 삽입하게 된다. 그리고 (8b)와 같이  $y = x$ 라는 조건을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담화표상에 삽입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전체 부분을 모두 해소하게 되면, 기존의 담화표상 (8a)와 새로이 생성된 담화표상 (8b)는 합병되어 (8c)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청자가 담화지시자  $x$ 가 [+female]의 속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개체를 나타낸다고 판단하면, 달리 말해서 *a delegate*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1)를 접한 청자의 인지 상태는 (7)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되며, (8c)의 담화표상구조가 나타내는 인지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sup>1</sup>



### 2.3 복합 담화표상구조에서의 전제와 조용어 처리

아래의 예문을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Kamp et al. (2003)의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에서는 조건문에 나타나는 조용관계와 전제가 어떻게 분석되는 지를 살펴보자.

(9) If a boy<sub>1</sub> has a rabbit<sub>2</sub> and he<sub>1</sub> loves it<sub>2</sub>, then he<sub>1</sub> overfeeds it<sub>2</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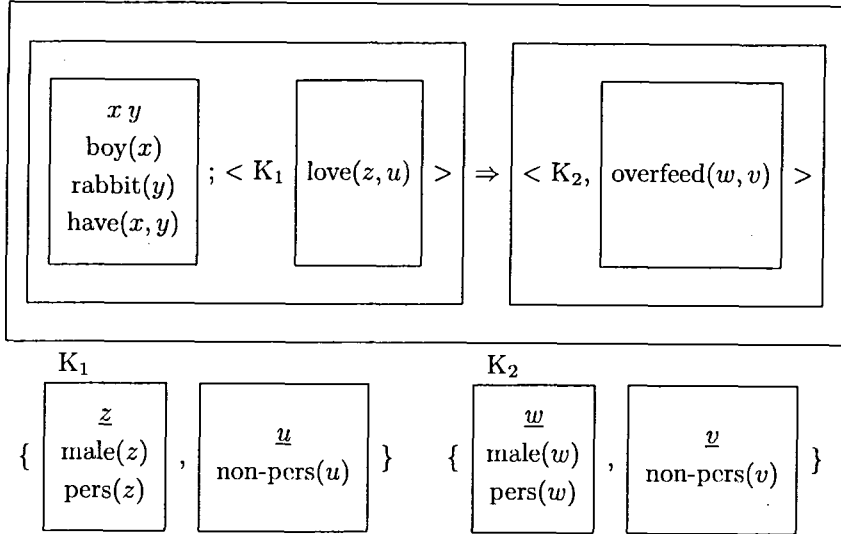
먼저 (9)의 초기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sup>1</sup> Kamp et al.(2003:17)은 (7)의 담화표상구조에서 대명사 *she*가 소개한 담화지시자  $y$ 와 조건  $fem(y)$ 가 *a delegate*가 소개한  $x$ 와 융합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She* requires a suitable antecedent, either one that has the property female or one that is neutral between a fe/male interpretation, to be available in the context established so far. (중략) *Delegate* is neutral, so the presupposition can be satisfied by accommodating fem( $x$ ) to the context D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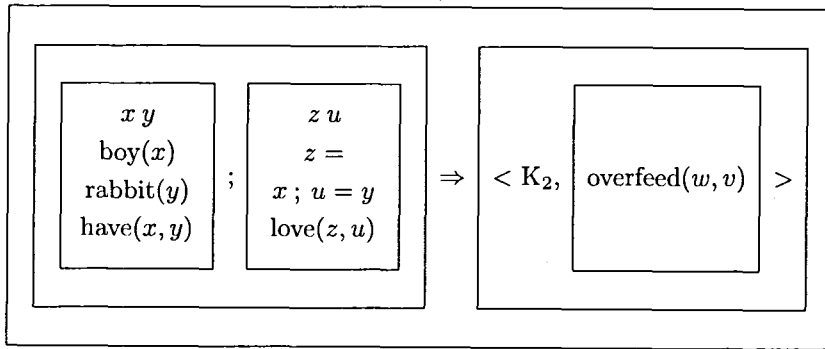
즉, 대명사 *she*를 접한 청자는 이미 담화에서 생성된 문맥 내에서 여성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명시된 표현이나 여성/남성의 자질 구분이 안 되어 중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선행사로 취하려고 하는데, 문맥 내에 존재하는 표현이 여성/남성의 구별이 명시되지 않은 *a delegate* 하나이므로 이를 선행사로 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자가 *she*가 *a delegate*를 선행사로 취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언급하였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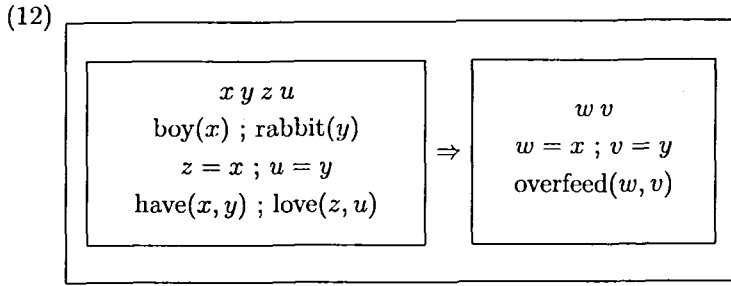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K_1$  부분의 전제를 처리하면 아래 (11)과 같은 중간 담화표상구조가 나오게 된다.

(11)



이제 조건문의 결과절에 해당하는  $K_2$ 와 그 오른쪽의 담화표상에 명시된 담화지시자에 대한 전제 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11)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조건문의 선행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담화표상구조에 명시된 담화지시자와 조건어는 것도 구조상 조건문의 결과절에 있는 담화지시자와 조건어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amp et al.(2003)은 문맥을 통하여 전제가 다 만족된 등위 구문의 담화표상구조를 하나의 담화표상으로 합병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아래의 담화표상구조에서 보듯이, 선행절 담화표상구조가 하나로 병합되며, 이에 따라 결과절의 전제 및 담화지시자 조응 해석이 처리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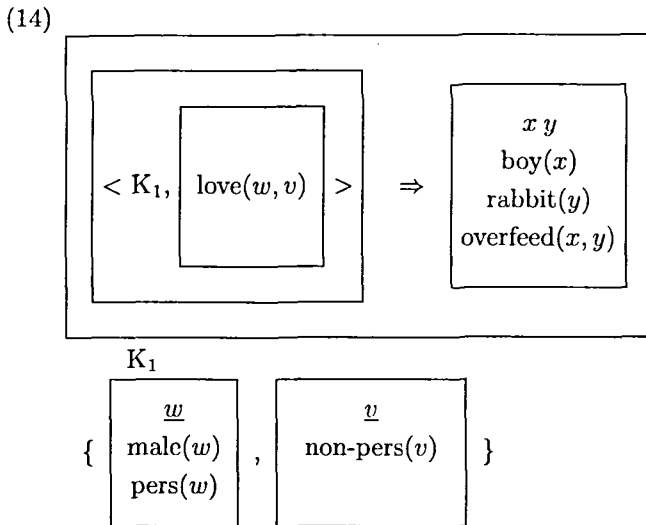


2.4 역행조건문과 조응 관계

지금까지 소개한 Kamp et al.(2003)의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은 아래 (13)과 같이 조건절이 주절보다 뒤에 나오는 문장에 나타나는 조응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문을 편의상 역행조건문이라 부른다. 반면, (9)와 같이 조건절이 주절보다 선행하는 조건문을 순행조건문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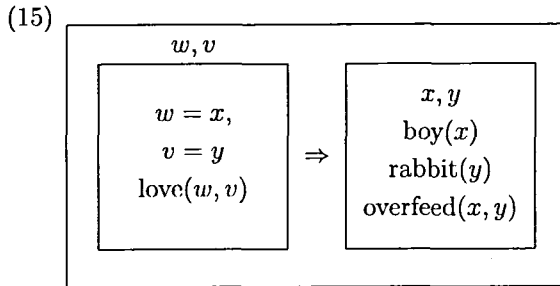
(13) A boy<sub>1</sub> overfeeds a rabbit<sub>2</sub> if he<sub>1</sub> loves it<sub>2</sub>.

먼저 Kamp et al.(2003)에 따라 (13)의 초기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면 (1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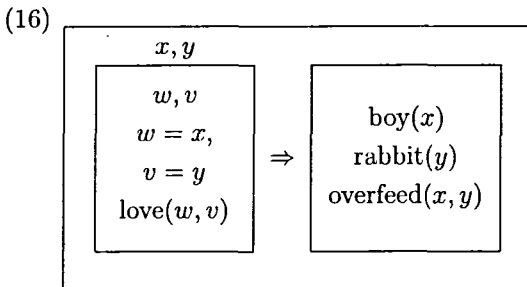


이제 조건문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K<sub>1</sub>과 그 오른쪽의 담화표상에 명시된 담화지시자에 대한 전제 부분을 처리하여야 하나, 그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14)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조건절에 있는 담화지시자와 조건으로부터 접근가능한 위치에 있는 담화지시자나 조건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3)의 문장에 대한 의미 분석, 특히 대명사 *he*와 *it*에 의해 소개된 전제부분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인 *a boy*나 *a rabbit*과의 조응관계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13)의 *he*와 *it*은 각각 *a boy*와 *a rabbit*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모국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대명사가 소개하는 전제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Kamp et al.(2003:145)가 사실성 전제(factive presupposition)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있는 수용(accommodation)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대명사 *he*와 *it*이 불러오는 전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3)의 문장이 사용된 담화 문맥상 현저한 남자 한 명과 하나의 개체가 있다는 사실을 담화표상구조에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14)의 담화표상구조 중 하위 담화표상에 소개된 담화지시자 *w*와 *v*를 주 담화상자로 상승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a boy*와 *he*, 그리고 *a rabbit*과 *it* 사이의 조응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w = x, v = y$ 라는 담화조건을 조건절을 위한 담화표상에 설정하면 될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담화표상구조 (14)로부터 (15)의 담화표상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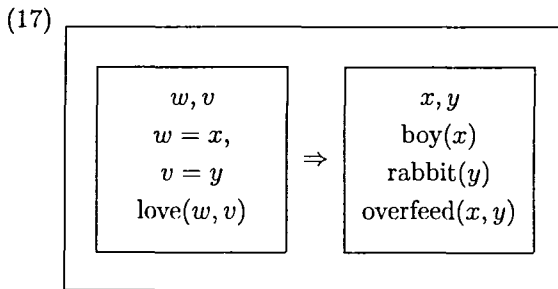


(15)의 담화표상구조는 대명사 *he*와 *it*이 제기한 전제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 *a boy*와 *a rabbit*과의 조응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의 담화표상구조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조건절에 명시된  $w = x$ 와  $v = y$ 라는 조건은 담화표상이론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인 접근가능성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접근가능성 원리에 따르면 대명사가 소개하는 담화지시자는 그 지시자로부터 접근 가능한 담화표상에 있는 담화지시자하고만 동일 지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x$ 와  $y$ 는  $w$ 나  $v$ 로부터 접근가능하지 못한 담화표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의 담화표상구조에서 담화지시자  $w$ 와  $v$ 를 주담화표상에 상승시키는 대신  $x$ 와  $y$ 를 주담화표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래 (16)의 담화표상구조가 도출되는데 이것은 조응어해석에 있어 (15)와 같은 해석을 주며, 접근가능성 원리도 위배되지 않고 있어, 적합한 담화표상구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5)의 담화표상구조나 (16)의 담화표상구조 모두, (13)에서 얻을 수 있는 해석 중 한 가지 해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5) 또는 (16)의 담화표상구조는 비한정 표현인 *a boy*와 *a rabbit*의 영역이 조건절 운용자(conditional operator)의 영역보다 넓은 해석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3)의 담화세계에 소년 한 명과 토끼 한 마리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 이 해석 외에 (13)에서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담화세계에 최소한 한 명의 소년이 존재하고, 최소한 한 마리의 토끼가 존재하며, 최소한 한 소년이 토끼를 사랑하면 그 소년은 그 사랑하는 토끼에게 너무 많은 먹이를 준다’는 해석으로, 이때 담화세계에는 소년과 토끼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15) 혹은 (16)의 담화표상구조가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조건절 운용자가 비한정표현보다 광역의 의미를 가질 때 나오는 해석으로, (13)을 접한 모국어자들이 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이 두 번째 해석을 나타내는 담화표상구조는 아래 (17)과 같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담화표상이론의 접근가능성 원리에 의하여 대명사가 소개한 담화지시자는 그 위치로부터 접근 가능한 곳에 있는 다른 담화지시자하고만 동일 지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17)의 담화표상구조는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에서 도출될 수 없는 담화표상구조이다. 즉, (13)의 두 번째 해석은 (14)의 초기 담화표상구조에서 (15) 혹은 (16)의 담화표상구조를 도출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도출될 수가 없다.

### 3. 선형분석과 조응어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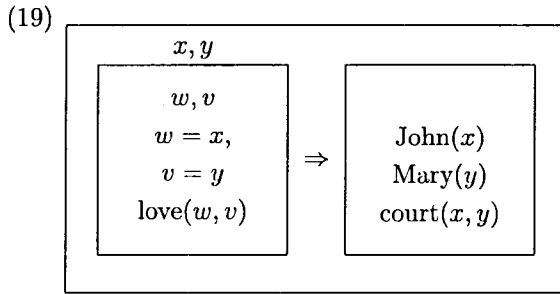
#### 3.1 선형분석의 필요성

그럼, 역행조건문 (13)의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는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이에 대한 답을 간략히 말한다면, Kamp et al.(2003)에 제시된 담화표상이론으로서는 그와 같은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발화순서 혹은 어순을 고려한 선형분석의 도입을 통해서만 (13)의 두 번째 해석을 담화표상구조로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형분석이란 단순히 언어표현간의 순서만이 아니라 담화표상의 생성 순서를 고려하는 선형분석이며, 그 선형분석의 개념에 따라 Kamp et al.(2003)에 제시된 담화표상 생성 규칙과 접근가능성의 개념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선형분석은 문장요소들의 담화표상을 발화된 순서에 따라 구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는 의미는 같으나 어순이 다른 아래의 두 문장을 들은 청자의 인지 과정이 다르다는 점에 의거한다.

- (18) a. If he loves her, John courts Mary.
- b. John courts Mary if he loves her.

Kamp의 담화표상이론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위 두 문장은 모두 최종적으로 아래 (19)와 같은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Kamp의 담화표상이론은 (18)의 두 문장을 접한 청자의 인지 과정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의 담화표상구조를 보고서 청자가 실제로 접한 문장이 (18a)인지 혹은 (18b)인지를 알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기존 담화표상이론이 (18)의 두 문장을 접한 청자의 인지과정의 차이점을 반영하면서, 또한 동시에 완성된 담화표상구조를 보고서 본래의 문장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도록, 아래 (20)의 기본 생성규칙을 첨가하고자 한다.

(20) DEFINITION 0.0.

- (i) Every element is processed in order of utterance.<sup>2</sup>
- (ii) Every sentence is assigned its own DRS.<sup>3</sup>

<sup>2</sup> 여기에 제안된 선형분석에 따른 담화표상 생성에 대한 기초 개념은 Chung(1992)에 제안되었다. 하지만, Chung(1992)은 어순에 따른 분석 개념을 각각의 담화표상 생성 규칙에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Chung(1992)에 제시된 순행조건문과 역행조건문을 위한 담화표상 생성규칙이다.

C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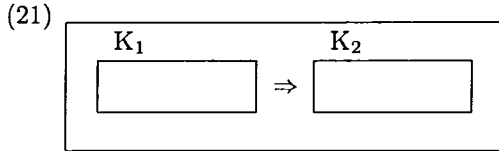
Assume  $\langle \Phi, k \rangle$  is a conditional with antecedent  $\langle \pi, r \rangle$  and consequent  $\langle \theta, s \rangle$ . (i) If  $\langle \pi, r \rangle > \langle \theta, s \rangle$ , then create  $\langle m_i, m_j \rangle$  such that  $m_i = \langle \Phi, \{ \langle \pi, r \rangle \} \rangle$  and  $m_j = \langle \Phi, \{ \langle \theta, s \rangle \} \rangle$ ; (ii) if  $\langle \pi, r \rangle < \langle \theta, s \rangle$ , then create  $\langle m_{i'}, m_i \rangle$  such that  $m_{i'} = \langle \Phi, \{ \langle \pi, r \rangle \} \rangle$ ,  $m_i = \langle \Phi, \{ \langle \theta, s \rangle \} \rangle$  and  $m_i$  is processed before  $m_{i'}$ . (Chung 1992: 177)

본고에서는 이처럼 모든 담화표상 생성규칙에 (20i)의 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i)를 기본 원리로 설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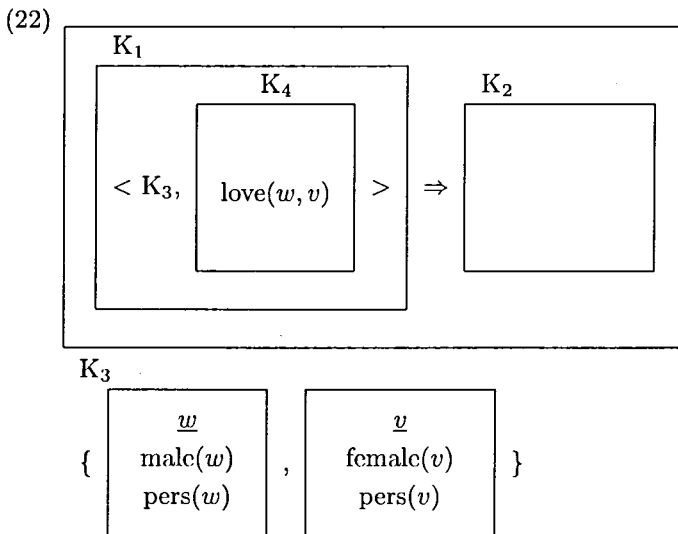
<sup>3</sup> (20ii)의 원리는 아래 예문과 같이 고유명사라 할지라도 그 지시대상이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 i) Samantha wants to meet Mr. Aliha, who does not exist in the world.

위의 기본 원리와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의 담화표상생성규칙에 따라 순행 조건문 (18a)의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일 먼저 발화된 복합 담화표상구조 생성을 유발 운용자 if를 접한 청자는 아래와 같이 조건문을 위한 복합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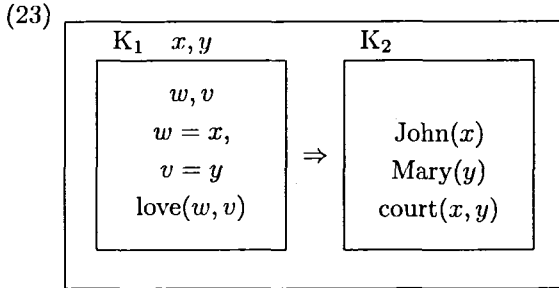
이후, 조건절의 내용을 접한 청자는 (21)에서 (22)와 같은 구조를 도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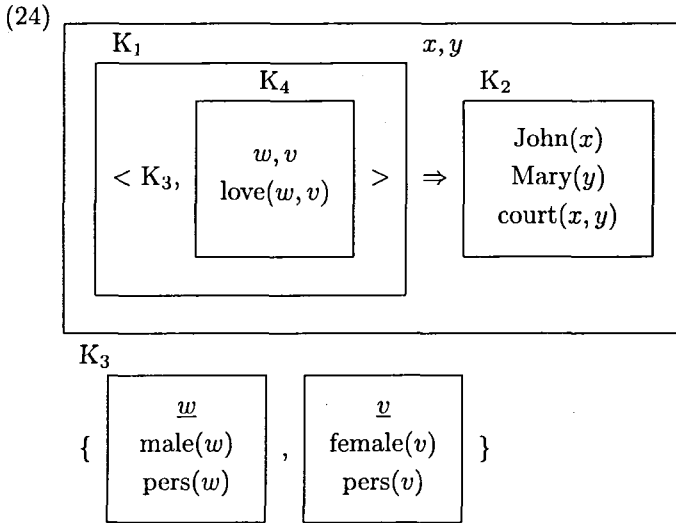
위 (22)의 담화표상구조는 청자가 조건절의 정보만으로는 대명사 *he*와 *her*가 유발하는 전제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주절을 접한 청자는 고유명사 *John*과 *Mary*를 위한 담화지시자  $x, y$ 를 주 담화표상에 설정하고  $John(x), Mary(y), court(x, y)$ 라는 담화조건을  $K_2$ 의 담화표상에 설정하게 된다. 이후, 청자가 *John*과 *he*가 동일인이며, *Mary*와 *she*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면, 이에 적합한 동일지시조건을  $K_1$ 에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명사 *he*와 *her*로 인해 유발된 전제부분을 해

이 원리는, 고유명사는 그 담화지시자를 주 담화표상에 소개함으로써 그 고유명사가 지시하는 개체가 담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대부분의 담화표상이론 문헌과는 달리, 모든 명사 표현의 담화지시자를 전제해소 여부에 따라 주 담화표상에 상승시켰던 Sandt(1992)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20ii)에 따라 위 문장의 담화표상을 구축하면, *Samantha*와 *Mr. Aliba*는 담화지시자를 먼저 하위 담화표상에 소개를 하게 된다. 이후, 담화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화지시자는 주 담화표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Mr. Aliba*는 같은 문장에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Mr. Aliba*가 소개한 담화지시자는 주 담화표상에 상승되지 못하고 하위 담화표상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담화지시자 상승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hung(1992)와 Sandt(1992)를 참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i)의 예문과 같이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체를 지시하는 고유명사의 예문 다루지 않으므로, 담화지시자 상승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자는 (22)로부터 (23)의 담화표상구조를 도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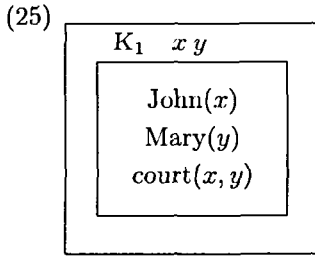


물론, 청자가 *John*과 *he*가 동일인이 아니고, *Mary*와 *she*도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 하면, 청자는 (22)로부터 (23)이 아닌 (24)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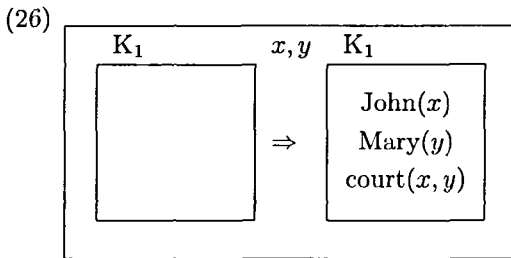


이때, 청자가 앞의 문맥이나 뒤의 문맥에서 대명사 *he*와 *she*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18a)를 접한 청자의 인지상태는 (24)의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상태는 청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화 중간 부분부터 참여하면서 (18a)를 그 첫 문장으로 들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인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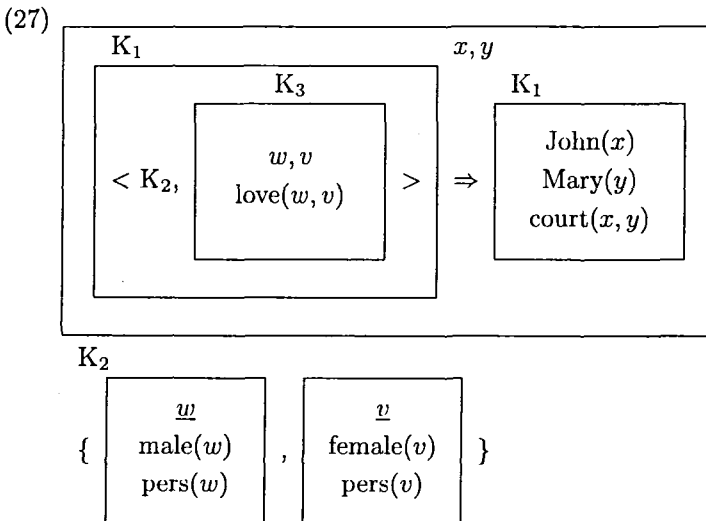
이제 역행조건문 (18b)의 담화표상구조 생성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절 *John courts Mary*를 접한 청자는 (25)의 담화표상을 생성하게 된다.



이후, 조건절의 복합 담화표상구조 생성을 유발하는 *if*를 접한 청자는 (25)의 주 담화표상으로부터 (26)의 복합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26)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 후, 조건절의 *he loves her*를 접한 청자는 왼쪽의 하위 담화표상에 이에 알맞은 담화조건을 설정하며, 또한 대명사 *he*와 *her*가 유발하는 전제 부분을 설정하여 (27)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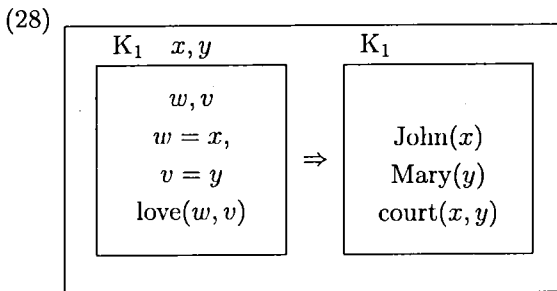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주목할 것은 왼쪽의  $K_1$ 은 오른쪽의  $K_1$ 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즉, 구축이 진행되어 오던 담화표상  $K_1$ 이 조건절 운용자 *if*의 출현에 따라 복합담화표상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오른쪽의  $K_1$ 에 있는 모든 담화조건은 왼쪽

의 담화표상  $K_1$ 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오른쪽  $K_1$ 의 모든 담화조건은 왼쪽의  $K_1$ 이나 그에 내포된 모든 하위 담화표상으로부터 접근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역으로 왼쪽의  $K_1$ 의 담화조건은 오른쪽  $K_1$ 의 담화표상으로부터 접근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왼쪽의  $K_1$ 는 오른쪽의  $K_1$ 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구조상 왼쪽의  $K_1$ 가 오른쪽의  $K_1$ 보다 하위담화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18b)를 접한 청자의 인지 과정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b)의 주절의 내용에 따라 (25)의 담화표상을 설정하고, 조건절 운용자 *if*를 듣고 (26)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 청자에게는 담화세계에 *John*과 *Mary*라는 두 개체  $x, y$ 가 존재하며, 그 두 개체사이에는  $court(x, y)$ 라는 관계가 있다는 인지상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절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청자는 이미 인지되어 있는 두 개체 ( $x$ 와  $y$ )와  $court(x, y)$ 라는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청자는 담화문맥상 *he*가 *John*과 같은 사람이며, *she*는 *Mary*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w = x$ 와  $v = y$ 라는 담화조건을 왼쪽의  $K_1$ 에 설정하며, 이를 근거로  $K_2$ 의 전제부분을 해소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청자는 (27)로부터 (28)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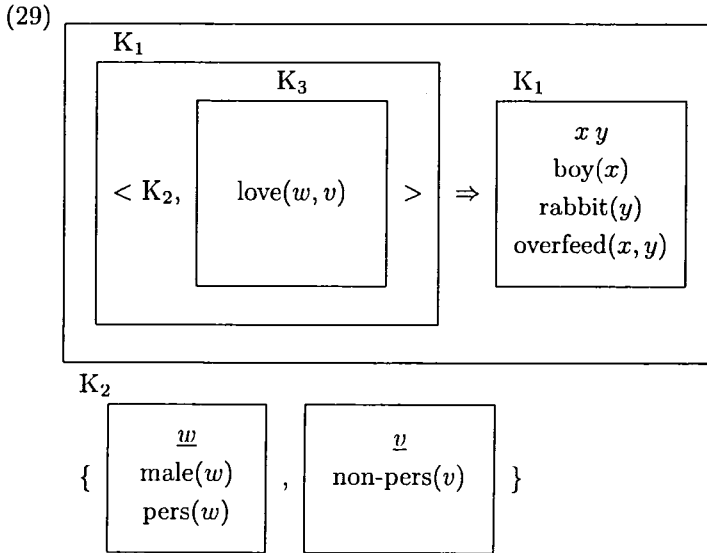
만일, (27)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한 후, 청자가 담화문맥상 조건절의 대명사가 주절의 고유명사와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대상을 찾아 담화지시자  $w, v$ 와의 동일지시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K_2$ 의 전제부분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청자가 대명사 *he*와 *she*가 지시하는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청자의 인지 상태는 (26)의 담화표상구조가 나타내는 인지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본고에서 제안하는 선형분석의 개념에 따라 (18)의 두 문장을 위한 여러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여 보았다. 이 중, 주절의 고유명사와 조건절의 대명사가 동일인을 지시하는 경우, 즉  $John=he$ 이고  $Mary=she$ 인 경우, (18a)는 (23)의 담화표상구조로 실현되며, (18b)는 (28)의 담화표상구조로 실현되었다. (23)과 (28)의 담화표상구조를 비교하면, 다른 모든 것은 같으나 오른쪽의 하위 담화표상이 (23)의 경우  $K_2$ 라는 지표, (28)의 경우  $K_1$ 이라는 지표로 명시되어 있다. 이 차이는 (23)과 (28)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 문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른 점은 (23)의 입력인 (18a)와 (28)의 입력인 (18b)의 두 문장이 궁극적인 내용은 같으나, 표현의 발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설명한다면, 내용이 같으나

어순이 다른 (18)의 두 문장을 접한 청자의 인지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23)과 (28)의 담화표상구조의 차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23)과 (28)의 담화표상구조의 차이점을 통해서 (18a)와 (18b)의 어순이 다른 두 개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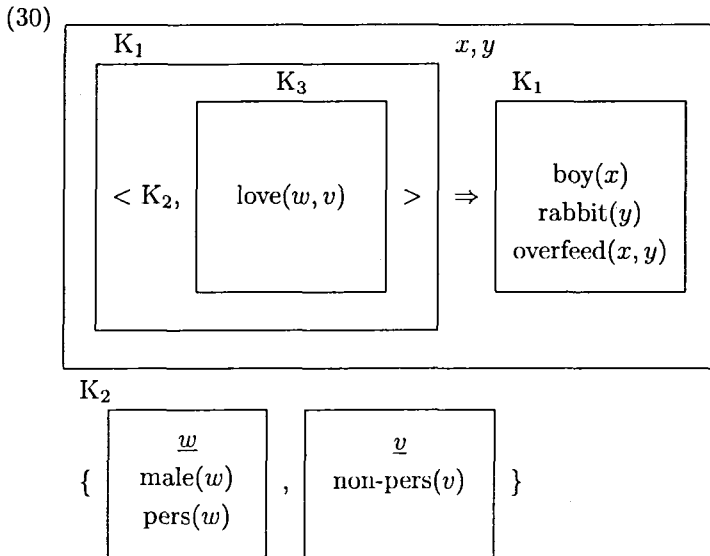
3.2 선형분석에 따른 분석

앞 절에서 소개된 선형분석 개념을 도입한 담화표상이론에 따라, 2.4절에서 논의된 (13)의 예문을 분석하도록 하자. 먼저, (13)의 초기 담화표상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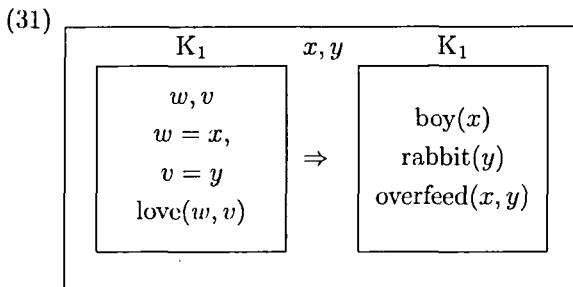


위 (30)의 담화표상구조 생성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순에 따라 (13)의 조건문 중 주절  $A \text{ boy}_1 \text{ overfeeds a rabbit}_2$ 을 위한 담화표상  $K_1$ 이 생성된다. 그 다음, 조건문의 조건절을 분석하기 위해, 이미 생성된 담화표상  $K_1$ 의 왼쪽에 같은 지표를 가진 담화표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그 담화표상 내에 조건절의 표현과 관련된 담화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전절에서 설명되었듯이, 담화표상 간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 관계와는 달리, 동일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  $K_1 \Rightarrow K_1$  중 오른쪽  $K_1$ 에 소개된 담화지시자  $x$ 와  $y$ 는 왼쪽  $K_1$ 에 소개된 조건으로부터 접근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가능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29)의  $K_2$ 의 전제 부분에 소개된  $w$ 와  $v$ 는 오른쪽  $K_1$ 에 소개된  $x$ 와  $y$ 를 그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K_2$ 의 전제 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며, 그 결과 (13)의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는 (17)의 최종 담화표상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반면, 선형분석 개념에 따라  $a \text{ boy}$ 와  $a \text{ rabbit}$ 이 조건절 운용자보다 광역의 의미를 갖는 (13)의 첫 번째 해석을 나타내는 (16)의 담화표상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초기 담화표상구조는 다음과 같다.



위 (30)의 담화표상구조의 전체 부분을 해소하면 아래 (31)의 담화표상구조가 도출되는데, 이는 앞에 논의된 (16)의 담화표상구조와 같은 담화표상구조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 제시하는 선형분석은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의 결점을 보완하여, (13)과 같이 주절이 조건절을 선행하는 조건문에 나타나는 조응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선형분석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Kamp et al. (2003: 21-22)에 명시된 정의에 추가될 수 있다.

(32) a. DEFINITION 0.2.

(viii) if  $Kr$  is a DRS, then  $Kr \Rightarrow Kr$  is a condition.

b. DEFINITION 0.5.  $Kr$  is an immediate sub-DRS of  $K_m$ ,  $Kr < K_m$ , if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olds:

(i)  $\neg Kr \in \text{Con}_{K_m}$



- (ii) there is a DRS  $K_2$  sth.  $Kr \Rightarrow K_2 \in \text{Con}_{K_m}$  or  $K_2 \Rightarrow Kr \in \text{Con}_{K_m}$
- (iii) there is a DRS  $K_2$  sth.  $Kr \vee K_2 \in \text{Con}_{K_m}$  or  $K_2 \vee Kr \in \text{Con}_{K_m}$
- (iv)  $Kr \Rightarrow K_m \wedge r=m$

c. DEFINITION 0.7. Given DRSs  $K_m$  and  $K_r$ ,  $K_m$  is accessible from  $K_r$ , in symbols  $K_m \text{ acc } K_r$ , iff

- (i)  $K_r \leq K_m$ ; or
- (ii) there exists DRSs  $K_2$  and  $K_3$ , sth.  $K_2 \Rightarrow K_3$  and  $K_m \text{ acc } K_2$  and  $K_3 \text{ acc } K_r$ ;  
or
- (iii)  $K_r \Rightarrow K_m \wedge r=m$

(32a)에 명시된 규칙 (0.2.-viii)는 주절이 조건절을 선행하는 조건문의 분석을 위한 동일 지표를 가진 복합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이다. (32b)의 DEFINITION 0.5 (i) - (iii)의 조건과 DEFINITION 0.7 (i)-(ii) 조건은 Kamp et al.(2003:22)에 제안된 내용을 본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표만 수정한 것이며, DEFINITION 0.5의 (iv)와 DEFINITION 0.7의 (iii)은 DEFINITION 0.2-(viii)에 의해 생성된 담화표상간의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조건으로 본고에서 새로이 첨가한 조건이다.

(32)에 제시된 동일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 생성 규칙과 수정된 접근가능성은 아래 (33)에서 대명사 *he*가 *a man*을 선행사로 취하지 못하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33) \* $He_1$  courts  $her_2$  if a  $man_1$  loves a  $woman_2$ .<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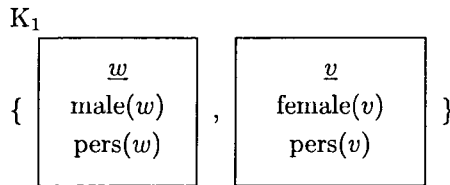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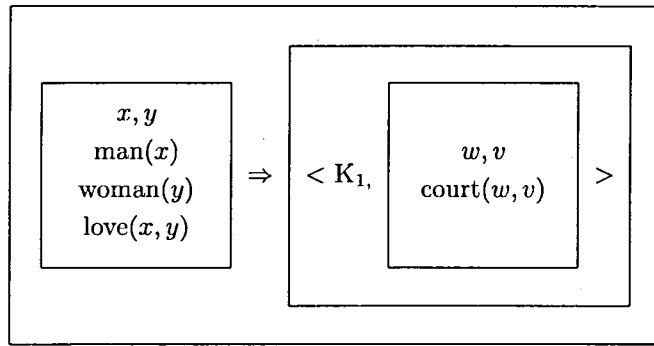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에 따라 (33)의 초기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면 (34)와 같다.

<sup>4</sup> 문장 (33)의 문법성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 중, (iii)이 가장 자연스러우나, (ii)도 가능하며, (i)도 (33) 문장보다는 수용가능성면에서 더 좋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i)  $He_1$  shares  $it_2$  with a  $neighbor_3$  if a  $farmer_1$  has a  $tractor_2$ .
- (ii) A  $farmer_1$  share  $it_2$  with a  $neighbor_3$  if  $he_1$  has a  $tractor_2$ .
- (iii) A  $farmer_1$  share a  $tractor_2$  with a  $neighbor_3$  if  $he_1$  has  $it_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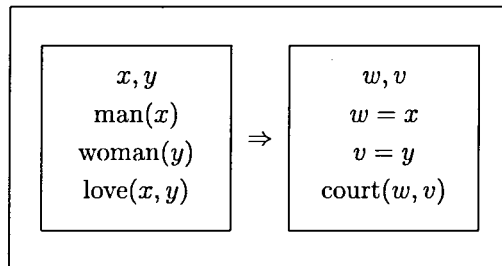
하지만, Chomsky(1981) 등 조응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문헌은 (i)과 (ii)를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같은 문법적 판단으로 위의 문장을 다루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실문에 답한 영어모국어자들 역시 (i)은 비문법적이며, (ii)는 (i)보다 좋으나 여전히 비문법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흥미로운 것은 같은 영어모국어자들은 다른 정보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i)에서 *he*가 *a farmer*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강요받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4)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a man*과 *a woman*이 소개한 담화지시자 *x*와 *y*는 대명사 *he*와 *she*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전제부분인  $K_1$ 가 해소될 수 있으며, 담화지시자간의 동일조건 설정으로 (35)의 담화표상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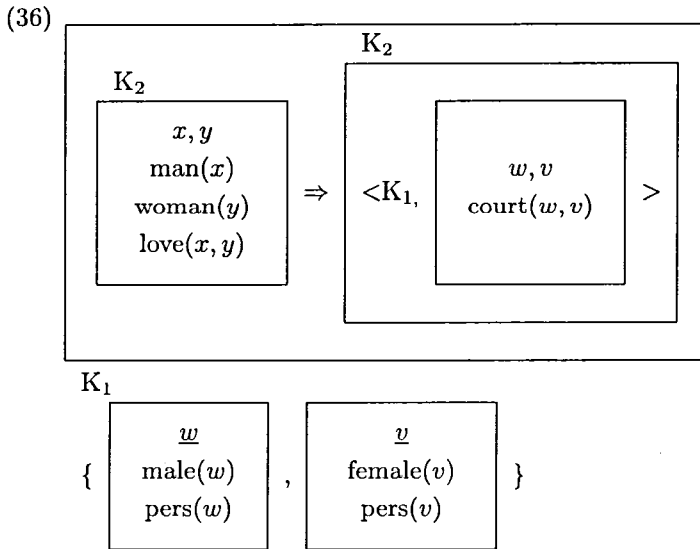


하지만 담화표상구조 (35)가 나타내는 *he = a man*과 *she = a woman*의 해석은 (33)의 문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해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Kamp et al.(2003)에 제시된 규칙으로는 (33)의 비문법성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sup>5</sup>

반면, 본고가 제시하는 (32)의 담화표상 생성규칙과 접근가능성은 (33)의 비문법성을 올바르게 설명하여 준다. 먼저 (32)의 규칙에 따라 (33)의 초기담화표상구조를 구축

<sup>5</sup> Kamp는 200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 15회 논리-언어-정보 유럽 여름 학교(FSLLI 2003)에서 가진 강연에서 Chomsky(1981)이 제시한 지배와 결속이론을 이용하여 가능하지 않은 조응관계를 통사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결과를 담화표상구조 생성에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Kamp et al.(2003:3)에서도 지배와 결속이론,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또는 머리구조문법(HPSG)과 같은 통사이론을 담화표상이론의 통사단계에 적용하는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33)의 \**He<sub>1</sub> courts her<sub>2</sub> if a man<sub>1</sub> loves a woman<sub>2</sub>* 문장에서 주어진 조응관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배와 결속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써, (33)의 문장에서 대명사 *he*가 비한정표현 *a man*을 성분지배하므로 *he<sub>1</sub> = a man<sub>1</sub>*의 해석은 결속이론 중 지시적 표현에 대한 C의 원리를 위반하게 되어 (33)의 전체 문장이 비문법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 (36)의 담화표상구조가 생성된다.



규칙 (32b-iv)와 (32c-iii)에 따르면,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왼쪽  $K_2$ 에 소개된  $x$ 와  $y$ 는 대명사 *he*와 *she*가 소개한  $w$ 와  $v$ 로부터 접근가능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대명사 *he*와 *she*는 *a man*이나 *a woman*과 동일지시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달리 조건절의 *a man*과 *a woman*이 가리키는 대상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담화세계에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36)에서 도출되는 최종담화표상구조는 (36) 그 자체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36)의 담화표상구조는 더 이상 발전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명사 *he*와 *she*가 전제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36)의 담화표상구조는 (33)을 접한 청자가 두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담화표상구조 규칙과 접근가능성 개념은 (33)을 들은 청자의 인지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위와 같이 지배와 결속 등 통사 이론에 의존하더라도 (13) *A boy<sub>1</sub> overfeeds a rabbit<sub>2</sub> if he<sub>1</sub> loves it<sub>2</sub>*의 조응관계를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에서 올바르게 표현할 수는 없다. (13)의 문장에서 명시된 조응관계는 지배와 결속이론이나 다른 통사이론에서 허용되는 관계이다. 하지만, 이 조응관계는 3.1에서 논의하였듯이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 생성 규칙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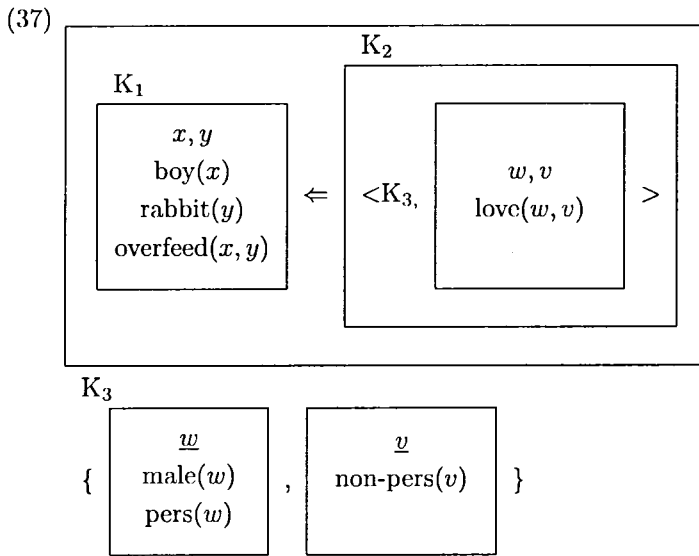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고는 Kamp et al.(2003:3)에서 언급되었듯이 가능한 특정한 통사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담화표상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33)의 비문법성을 통사단계이후인 담화표상구조 생성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sup>6</sup> 본 논문에 제시된 (32)의 담화표상 생성규칙과 접근가능성 개념을 이용하더라도 아래 (i)문장의 비문법성을 담화표상구조단계에서 설명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이나 하향식 담화표상이론 모두 *John*과 같은 고유명사는 어디에서 소개가 되던 항상 주 담화표상에 그 담화지시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John*이 소개하는 담화지시자는 대명사 *he*가 소개하는 담화지시자로부터 접근가능하며, 두 담화지시자간에 동일 지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3.3 역행 조건 운용자의 가능성

전절에서 다룬 (13)과 (33)의 조응어 해석과 관련된 Kamp et al.(2003)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32)의 담화표상생성규칙을 적용하는 대신에, 역행 조건 운용자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If A then B*가 술어논리에서  $A \Rightarrow B$ 로 전환되고, *B if A*는  $B \Leftarrow A$ 로 전환되듯이, (13)이나 (33)과 같은 역행조건문을 위한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때,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담화표상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의상 역행조건문의 형태를 그대로 보이는  $K \Leftarrow K$ 의  $\Leftarrow$ 를 역행 조건 운용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역행 조건 운용자는 3.1과 3.2에서 다룬 선형분석과는 달리, Kamp et al.(2003)에 제시된 담화표상간의 접근가능성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다.<sup>7</sup>

역행 조건 운용자를 이용한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 생성규칙을 설정할 경우, (13)의 문장에서 아래 (37)과 같은 초기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i) \*He<sub>1</sub> courts her<sub>2</sub> if John<sub>1</sub> loves a woman<sub>2</sub>!

하지만, 본 논문은 현재의 담화표상이론이 (13)과 (33), 그리고 뒤에 다룬 (40)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조응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수정안과 같은 선형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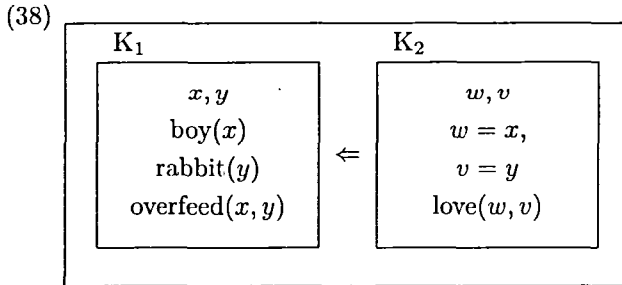
사실, Chung(1992)는 (i)과 같은 문장의 비문법성을 하향식 담화표상이론의 틀에서 설명하기 위한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기제를 Kamp et al.(2003)의 상향식 담화표상이론에 적용시키는 방안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sup>7</sup> Kamp et al.(2003) 등의 기존 담화표상이론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접근가능성은 아래의 설명에서와 같이 오른쪽 담화표상에서 왼쪽 담화표상으로, 그리고 하위 담화표상에서 상위 담화표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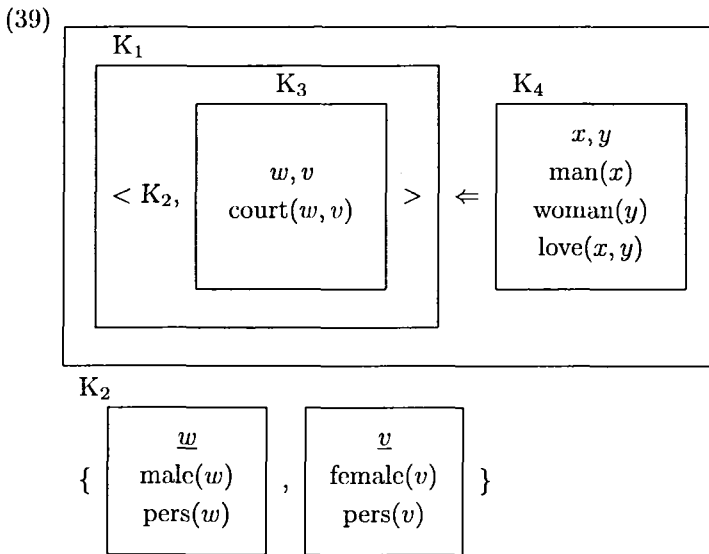
The accessibility relation can be graphically described in terms of the geometrical configurations of the box representation of the DRS language as going left and up. (Kamp et al. 2003:12)

변형생성문법에 익숙한 독자는 담화표상이론의 접근가능성을 변형생성문법의 수행도와 비교하여 설명한 Chierchia and Rooth(1984)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K_1$ 에 소개된  $x$ 와  $y$ 는  $K_2$ 와  $K_3$ 에 소개된  $w$ 와  $v$ 로부터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명사 *he*와 *it*에 의해 발생된 전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또한 화자가 의도한 조응어 해석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전제 처리를 거쳐 생성되는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다.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 생성규칙은 또한 전절에서 논의된 (33)의 예문 \* $He_1$  courts  $her_2$  if a  $man_1$  loves a  $woman_2$ 가 잘못된 문장임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역행 조건 운용자 개념을 이용하여 생성한 (33)의 초기 담화표상구조는 아래와 같다.


 $K_2$   

$w$   
 $male(w)$   
 $pers(w)$

,

$v$   
 $female(v)$   
 $pers(v)$

위의 담화표상구조에서 담화지시자  $x$ 와  $y$ 는 대명사 *he*와 *her*가 소개한 전제부분과 담화지시자  $w$ 와  $v$ 로부터 접근가능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제부분인  $K_2$ 는 해소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담화표상구조는 더 이상 분석될 수가 없다. 이는 대명사 *he*와 *her*는 비한정표현 *a man*과 *a woman*을 선행사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국어자의 직관에 맞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13)과 (33)의 두 예문에 대한 담화표상구조 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역행 조건 운용자를 이용한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Kamp et al.(2003)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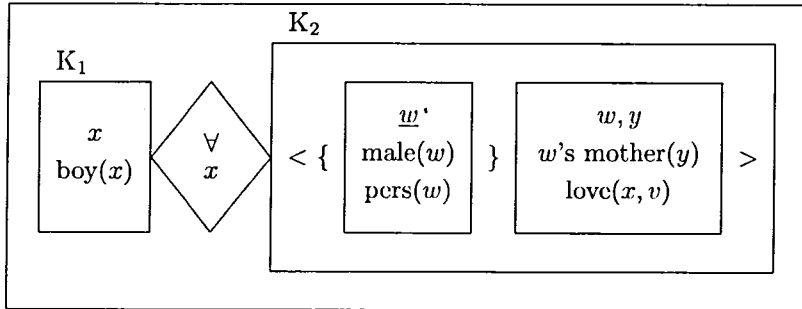
3.4 양화사와 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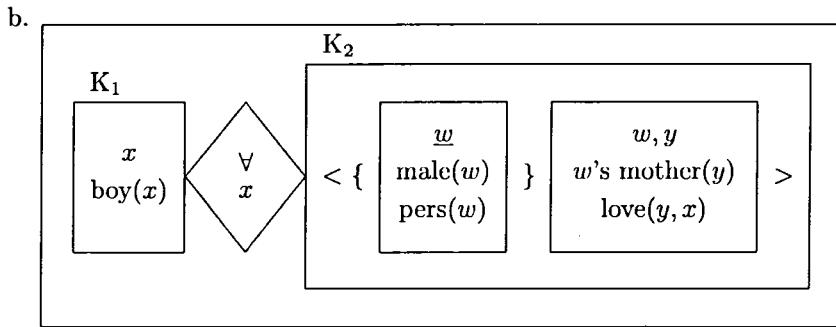
앞의 두 절에서 *A if B* 형태의 조건문에 나타나는 조응어 해석과 관련한 Kamp et al.(2003)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같은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을 이용한 첫 번째 방안과 역행 조건 운용자를 이용한 두 번째 방안 모두 예문 (13)과 (33)에 나타난 조응어 관계 여부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이 두 방안 중 첫 번째 방안이 담화표상이론 전체의 틀에 보다 더 잘 부합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아래 예문 중 (40a)는 *every boy*와 *his*의 동일지시 해석이 가능하지만 (40b)는 동일지시 해석이 가능하지 못하다. (40c)에서도 *most students*와 *their*는 동일지시 해석이 가능하나, (40d)에서는 동일지시 해석이 가능하지 못하다. 하지만, Kamp et al.(2003)은 이 같은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40a)와 (40b)의 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Kamp et al.(2003)이 제시한 담화표상 생성규칙에 따라 두 예문의 초기 담화표상구조를 구축하면, 그 결과는 두 예문 각각 아래 (41a)와 (41b)의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난다.

- (40) a. Every boy<sub>1</sub> loves his<sub>1</sub> mother.
- b. \*His<sub>1</sub> mother loves every boy<sub>1</sub>.
- c. Most students<sub>1</sub> like their<sub>1</sub> principal.
- d. \*Their<sub>1</sub> principal like most students<sub>1</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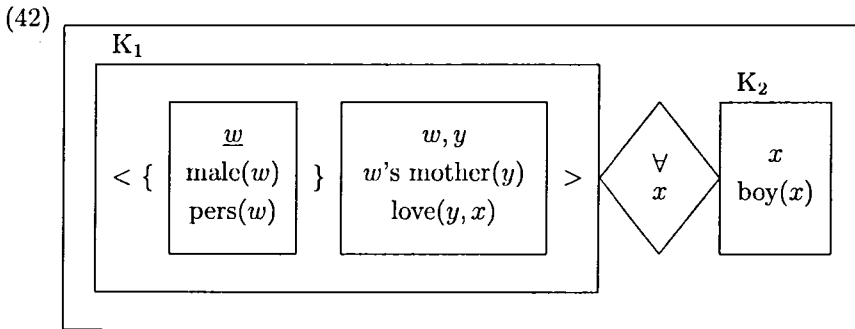
(4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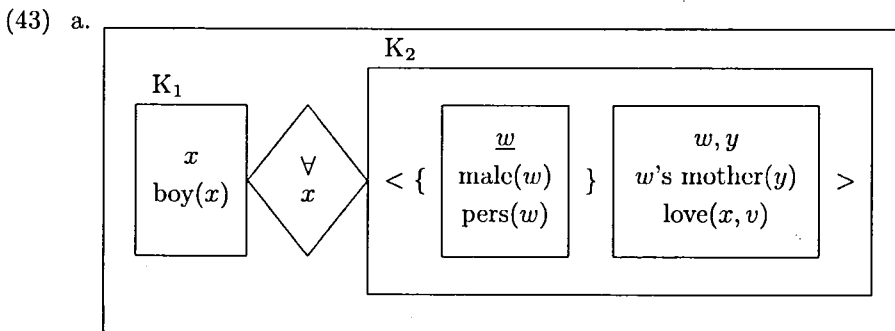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룬 두 가지 방안이 (40)의 예문에서 보이는 조응관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그에 대한 답을 간략히 말한다면, 첫 번째 방안인 동일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 생성 규칙을 이용한 첫 번째 방안은 (40)의 두 예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하는 역행 조건 운용자를 이용한 두 번째 방안은 그 두 예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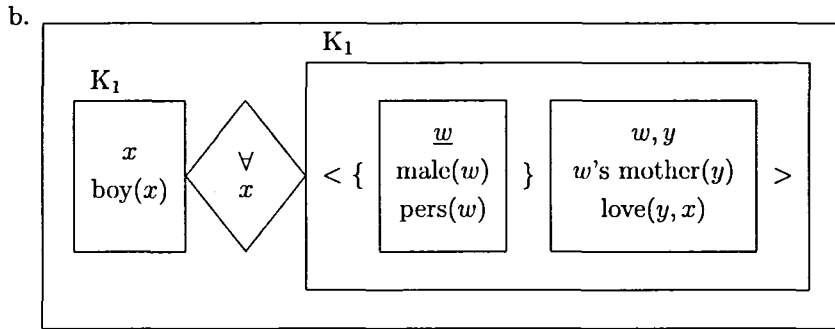
먼저, (40b)를  $K \leftarrow K$  형태의 담화표상구조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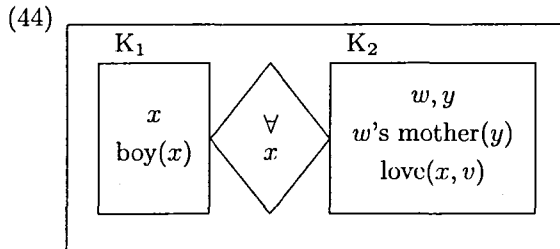
위의 담화표상구조의 문제점은  $K_1$ 의 담화조건  $love(y, x)$ 의  $x$ 가 결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첫 번째 방안을 (40a)와 (40b)의 두 예문에 적용하면, 각각 (43a)와 (43b)의 초기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43a)의 담화표상구조에서  $x$ 는  $K_2$ 에 소개된 모든 조건이나 담화지시자로부터 접근 가능하므로  $K_2$ 에 소개된 전제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지시자  $w$ 는  $x$ 와 동일 지시 조건 설정을 통하여  $his$ 가 *every boy*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44)의 최종적인 담화표상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43b)의 담화표상구조에서는  $x$ 가 오른쪽  $K_1$ 에 소개된 모든 조건이나 담화지시자로부터 접근 가능하지 못하므로, 대명사  $his$ 에 의해 유발된 전제 부분이 해소될 수 없으며, 또한 담화지시자  $w$ 와  $x$ 의 동일 지시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43b)의 담화표상구조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그대로 최종적인 담화표상구조로 남게 된다. 이는 (43b)를 담화의 첫 문장으로 들은 청자가 대명사  $his$ 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규명하지 못하는 인지 상태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4. 맺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Kamp et al.(2003)의 담화표상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13), (33), (40)과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조응어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K \leftarrow K$  형태의 역행 조건 운용자의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동일 지표를 가진 두 개의 담화표상 개념과 그에 따라 수정된 접근가능성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본고에 제시된 수정안은 모든 표현을 발화 순서에 따라 담화표상구조에 명시함으로써, 주어진 문장의 음운론적 특성, 통사적 특성 분석과 더불어 의미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며, 그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언어 전산 처리를 이룰 수 있는 담화표상이론 개발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lt;참고문헌&gt;

- Chierchia, Gennaro and Mats Rooth. 1984. Configurational Notation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NELS* 14, 49-63.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ung, So-Woo. 1992. *Cataphora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Ph.D. thesis, University of Washington.
- Kadmon, Nirit. 1987. Asymmetric Quantification. In Groenendijk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Sixth Amsterdam Colloquium*. ITLI, University of Amsterdam.
- Kamp, Hans. 1984.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Groenendijk et al. (eds.), *Truth, Interpretation and Information*. Foris Publications, Amsterdam, pp. 1-41.
- Kamp, Hans and Uwe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amp, Hans, Uwe Reyle, and Josef van Genabith. 2003.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Handbook of Philosophical Logic*. Kluwer, Dordrecht. (rough draft).
- Sandt, R.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377.

접수 일자: 2004년 10월 12일

게재 결정: 2004년 12월 4일